

아나톨의 작은 냄비



이사벨 카리에 지음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의 문제로
올리진 못해요.**

그래서, youtube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Youtube 영상을 꼭 먼저 봐 주세요~^^

아나톨의 작은 냄비



아나톨은 작은 냄비를 달그락 달그락 끌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냄비가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평범한 아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나톨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어요.

(돌돌돌.. 안녕하세요?)

가끔 사람들이 불편해 할 때도 있었어요.

(안아줘요. 어색해... 딱..귀여워~!)

아나톨은 아주 상냥한 아이이에요.

(괜찮아요?~)

그림도 아주 잘 그리고요.

아나톨은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잘하는게 아주 많은 아이표.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냄비만 쳐다봐요.

냄비가 이상하대요.

무섭나봐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힘들어요.

자꾸 걸려서

앞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나톨이 평범한 아이가 되려면 남들보다
두배나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나톨은 화를 내요.

소리도 질러요. (악~!)

나쁜 말도 막 해요. (똥~!)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지요. (아악~!)

물론 벌도 받아요.

아나톨은 냄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냄비는 떨어지지 않아요.

작은 냄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숨어 버리기로 했지요.

그러면 더 편해질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아나톨을 조금씩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아나톨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세상은 아나톨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안녕, 꼬마야~ 툽툽~)

세상에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나도 있다.~)

그럼 작은 냄비를 벗어 버리고 싶어지거든요.

(네 것이 조금 더 크구나.)

같이 가자~

그 사람은 아나톨이 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아나톨이 무엇을 잘하는지 가르쳐 주었지요.

무서운 것도 표현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사람은 아나톨이 재능이 아주 많은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와~ 멋지구나~)

아나톨은 다시 명랑한 아이가 되었죠.
그 사람은 아나톨에게 냄비를 넣을 수 있는
가방도 넣어 주었어요.

(짜~ 선물~!)

고마워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또 보자~ 아나톨~)

작은 냄비는 아직도 달그락달그락 해요.

하지만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요~!

이제 아나톨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어요.

(앗싸~~ 잘한다~ 아나톨~)

사람들도 아나톨을 많이 칭찬해 주었어요.

(아나톨이 그린 거예요. 오우~ 정말 흥미롭군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아나톨이랍니다.

작가의 말~

냄비에는 원래 물이나 스프, 강낭콩을 넣습니다. 때로는 냄비에 꽃을 꽃을 수 있고, 냄비 위에 걸터 앉거나 냄비를 머리에 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냄비에는 수프도 강낭콩도 담기지 않았습니 다. 냄비 안에는 그 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지요. 냄비가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 눈에는 냄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톨 은 많이 힘듭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냄비가 있습니다. 큰 냄비, 작은 냄비, 거추장스러운 냄비... 어쩌면 우리도 그런 냄비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벨 카리에-



아나톨에게
한 마디
해 준다면?



**가방을
만들어준
아주머니에게
안마디 해 준다면?**

나에게 작은 냄비란??



정책적 질문

1. 장애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2. 장애와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교육적 질문

1. 아나톨의 냄비가 장애나 결핍을 상징한다면,
당신이 가진 '냄비'는 무엇인가요?
이를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 아나톨을 도와준 아주머니와 같은 존재가
우리 사회에 많아지려면 어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감정적 질문

1. 아나톨이 자신의 냄비 때문에 숨어버린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만약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2. 자신의 약점이
디딤돌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볼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 할 거리가 많은 내용이지요?^^

포용과 공감을 키우는 교육 및 정책 설계에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선정해 봤습니다

...아나톨의 작은 냄비

이자벨 카리에 지음 권지현 옮김



씨드북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요.

귀가 없어요.

왜 일까요?

이 책의 작가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육아로 공감과 인내를 익힌 작가는 냄비를
‘장애, 결핍, 부족함’ 등으로 표현했고 이 그림책을
통해 진정한 어울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빛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네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